

환경부 장관, 낙동강 현장 방문...

취수원 다변화, 녹조 해결과 재자연화 의지 밝혀

- 안동댐, 강정고령보 등 취수원 다변화, 녹조 현장을 살피고 대응 태세를 점검
-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 녹조로부터 안전한 강 조성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추진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취수원 다변화, 녹조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의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동댐과 해평취수장을 방문하여 낙동강의 대규모 산업단지 분포 등 물 관리 여건,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낙동강 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상황과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를 줄이기 위해 야적퇴비 수거, 비점 오염저감시설 점검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취·정수장 녹조제거*에도 힘써왔다.

- * ▲조류차단막 설치로 취수구 녹조 유입 차단, ▲녹조제거선 운영으로 녹조 수거, ▲활성탄, 오존 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강화 등

이에 더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도적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장관은 영주댐과 강정고령보를 방문하여 녹조발생 현황과 보 개방여건을 확인하고, 오염원 관리 현황, 녹조제거설비 운영 실태 등 낙동강 녹조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원의 획기적 저감과 함께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재자연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보 개방 시 우려되는 취·양수장 및 지하수 이용 문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수원 다변화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부 장관 낙동강 현장 방문계획
2. 낙동강 상류(대구-경북) 취수원 다변화 대안 모식도
3. 조류경보제 지점도 및 경보발령 현황(8.7 기준)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044-201-7018)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7140)
		담당자	사무관	이재덕	(044-201-7159)

붙임 1**환경부 장관 낙동강 현장 방문계획****□ 점검 개요**

- (목적) ①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및 ②녹조발생 현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
- (일시/장소) '25. 8. 7(목), 11:30 ~ 17:35
- (장소) 영주댐, 안동댐, 해평취수장, 강정고령보, 문산 취·정수장

□ 참석

- (환 경 부) 장관, 물관리정책실장,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 대변인, 대구청장 등
- (수자원공사) 사장, 수도부문장, 환경에너지본부장, 낙동강유역본부장 등

□ 주요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영주댐 가축분뇨·녹조현장 점검】		
11:30~11:50	20분	■ 영주 가축분뇨 퇴비화시설(고체연료 포함)
11:50~12:25	35분	■ 이동(영주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 영주댐)
12:25~12:45	20분	■ 영주댐 녹조현장 점검
12:45~13:20	35분	■ 이동(영주댐 → 식당)
13:20~13:50	30분	■ 오찬 및 이동(식당 → 안동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현장점검】		
13:50~14:20	30분	■ 대구 취수원 안동댐 활용*(안) 현장점검 * (①취수원다변화 사업, ②안동댐 수질현황)
14:20~15:50	90분	■ 이동(안동댐 → 해평취수장)
15:50~16:20	30분	■ 구미광역시 해평취수장 현장점검 (‘21년 유역토 의결안)
16:20~17:10	50분	■ 이동(해평취수장 → 강정고령보)
【녹조발생 및 대응현황 점검】		
17:10~17:40	30분	■ 강정고령보 녹조대응 상황 보고
17:40~18:00	20분	■ 이동(강정고령보 → 문산 취·정수장)
18:00~18:30	30분	■ 녹조 발생현황 및 대응계획 보고 ■ 문산 취·정수장 녹조대응태세 점검



< 해평취수장 이용 - 안동댐 활용안 비교 >

구분	해평취수장 이용 (유역위 의결, '21.6)	안동댐 활용안 (유역위 상정 '24.12.)
지 역	■ 구미 해평 취수장(표류수)	■ 안동댐 직하류(표류수)
취수량	■ 30만톤/일	■ 46만톤/일
수혜 지역	■ 대구(28.2만톤/일), 성주(1만톤/일), 고령(0.8만톤/일)	■ 대구(40.9만톤/일), 신공항(3.3만톤/일) 성주(1만톤/일), 고령(0.8만톤/일)
관로	■ 45km(구미-대구)	■ 약 110km (안동-대구)
사업비	■ 해평(취) 도수관로 신설 5,104억원	■ 안동-대구 도수관로 신설 15,280억원
비고	■ 반구대 암각화 보존물량(운문댐) 추후 논의	■ 반구대 암각화 보존물량(운문댐) 4.9만톤+α

*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물량(운문댐) 공급 사업비 3,224억원 별도

